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아름다운 건축사

An architect for a better world

요즘 취재를 다니다 보면 건축사들로부터 “일하기 참 어렵다”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특히 소규모 건축사사무소의 경우는 일감도 일감이지만 예비 건축사들이 대형 사무소로 몰리는 통에 인력 수급의 어려움이 더해진다. 게다가 ‘건설사의 설계 겸업 허용’ 같은 움직임은 건축계의 분위기를 더욱 침통하게 만들고 있다.

얼마 전에 모 건축사사무소가 주최하는 세미나를 통해 한국 건축계의 양극화 현상에 관한 내용을 접한 적이 있다. 발제자가 실증적인 자료를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는 자리였는데, 여러 측면의 분석이 있었고 나름대로 방향도 제시되었던 듯하다.

각설하고, 아무튼 그 실증적 자료들이 보여준 결론은, 대형 사무소는 점점 규모가 비대해지는 반면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건축사사무소의 숫자는 증가 추세에 있고, 대부분이 서울과 경기 지역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다는 사실이다. 또 수행 프로젝트의 규모에서도 현격한 차이를 보여 주었다. (일례로 2005~2008년까지 수행한 주거 시설에서 대규모 사무소가 100,000㎡ 이상의 규모를 차지한다면 소규모 사무소는 고작 2,000㎡ 미만의 일감이 대부분이다) 즉 한국의 건축사사무소는 규모에서, 또 수행하는 프로젝트에서 양극화되고 있다는 것인데, 소규모 사무소가 중규모 사무소가 되기 위해서는 인원도 늘려야 하고, 보다 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춰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이러한 양극화 현상에서 건축사들은 어떠한 생존 전략을 가질 수 있을까?

혹자는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건축사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물론 협회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건설사의 설계 겸업 허용 반대를 위한 건축사들의 단체 행동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전문가들의 결집된 힘으로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키거나 호응을 얻어내는 것이 쉽지 않을 거란 의견도 있다. 지난날에는 그것이 가능했을 수도 있지만, 개방된 시민사회에서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존중받고 호감을 얻을 수 있는 전문인, 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로서의 건축사가 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몇 년 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장 존경하는 직업을 묻는 설문 조사에서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자신을 희생하는 일’이란 이유로 사회복지사가 1위를 차지했고, 그 뒤를 따른 것은 소방관, 교사 등이었다. 반면, 건축사란 직업은 기여와 헌신의 가치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텐데도 그 진면목을 잘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 세상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사람들과 늘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꿔 보려는 노력들이 별로 눈에 띄지 않는 것과 연관시켜 볼 수 있겠다.

따지고 보면, 모든 것이 개인에게 닿아 있는 오늘날, 불안한 사회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자신의 역량선(善)하게 발휘하는 개인의 숭고함이 아닐까 한다. 그러한 점에서 건축계에도 건축사 개개인의 아름다운 행보와 관련된 소식들이 넘쳐나고, 명예로운 건축사보다는 아름다운 건축사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언젠가는 사회에서 건축사들이 존경받고 호응을 얻는 시대가 도래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



정귀원 / Chung, Kwi-weon
건축 리포트 와이드 편집장,
간행미디어랩 공동대표

- 성균관대학교 건축공학과 및 동 대학원 졸업
- 월간 공간지 기자
- (주)서울건축 설계부
- 건축인 poar 편집장